

도서관 가는 길

2020 Vol. 43 통권 제43호 제27권 2호

생각을 꿈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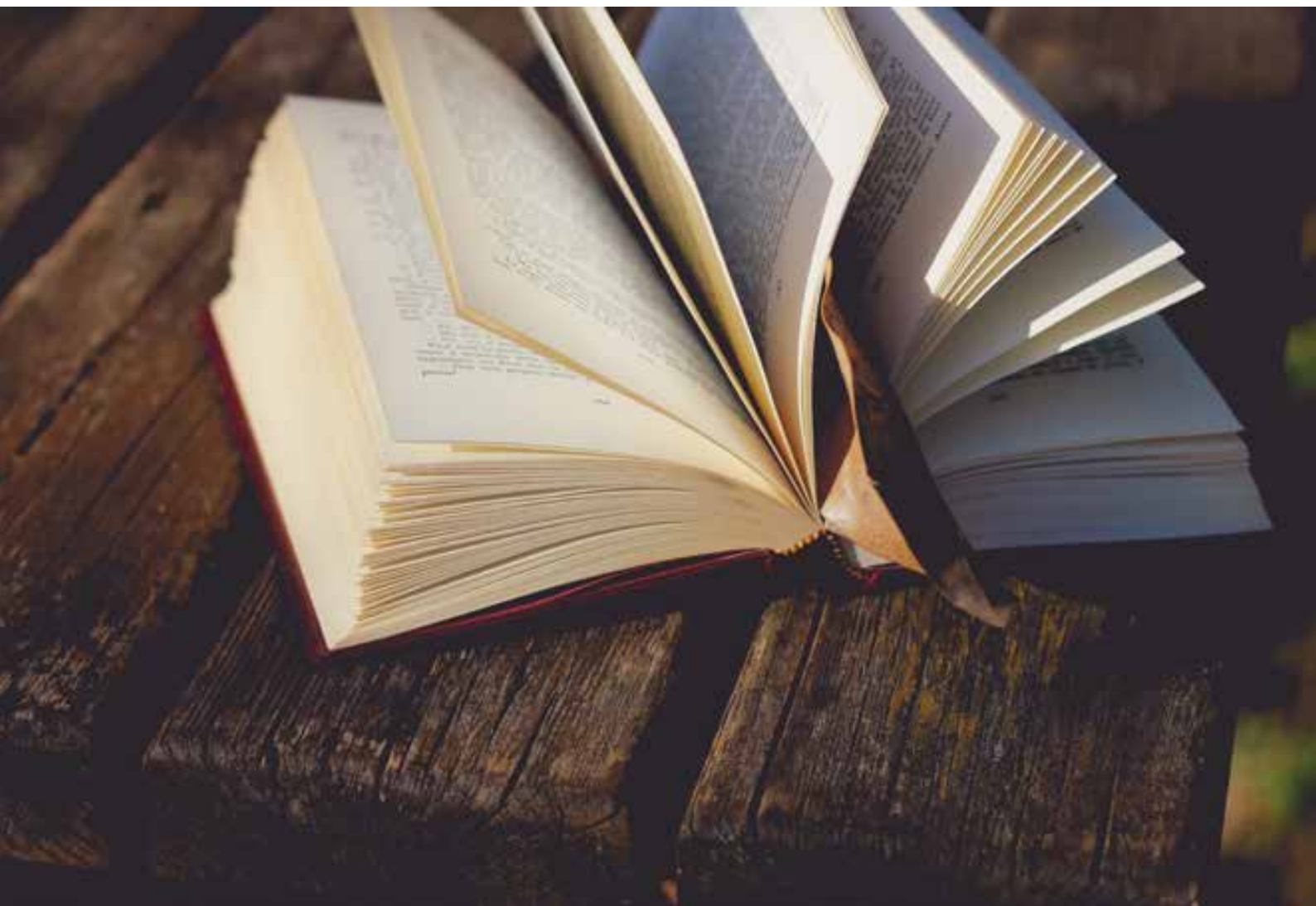
독서칼럼
도서관이 만난 사람

문화가 머무는

추천도서
아동 / 청소년 / 성인 / 쉼(休)이 필요한 그대에게

우리의 도서관

도서관 행사
도서관 소식 / 글마당



CONTENTS

Gyeongnam Library MAGAZINE 2020 Vol. 43

04

품꾸고

- 04 독서칼럼
독서하는 모습
나무에게서 배우는 지혜
- 06 도서관이 만난 사람
‘소소책방’ 조경국 작가

이루는

- 12 추천도서
아동 추천도서
청소년 추천도서
성인 추천도서
쉼(休)이 필요한 그대에게



발행월 2020년 9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

발행등록번호 76-6481183-000001-09 편집·인쇄 (주)경남신문사

18



기획코너

- 16 기획❶ 나를 위한 쉼
 북스테이 공간
- 18 기획❷ 책을 만나는 다른 방법
 오디오북
- 20 기획❸ 문화예술
 경남도내 문화예술 소개

도서관

- 24 하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 28 공공도서관 새 소식
- 34 글마당
 내 삶 속 도서관

16



17



30



독서칼럼 ①

독서하는 모습

글 화가 이호신



화가 이호신 (1957~)

24회의 개인작품전과 22권의 화문집(화집 포함)을 냈다.

대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이화여대박물관, 경남도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010년 산청 남사에담촌으로 귀촌하여 작품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2017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천하의 일은 이로움과 해로움이 반반인데,
온통 이롭고 작은 해로움도 없는 것은 다만 책뿐이다.” - 허균(1569~1618)의 『한정록』 중에서

위의 글은 한마디로 독서의 효용과 중요성을 간파한 것이다. 사람은 책을 통해 타인의 세계와 경험을 간접 체험하는 바 '마음의 양식'이 쌓인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온축을 통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다.

나는 작가로서 수많은 화첩사생과 더불어 인문의 통찰이 내 작품에 투영되고 있다고 믿는다. 미술사와 철학, 생태학 등을 통해 현상 너머의 본질을 희망하기에, 이 독서의 일상은 그림일기가 되어 여러 화문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실로 독서의 중요성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으로 종이책을 읽는 모습이 줄어들고 있다. 간혹 지하철에서 거반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독서하는 이를 보면 그리 반가울 수가 없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

독서의 장소는 어느 곳이든 유효하고, 타인에게 누가되지 않는 행위로 가장 독립적이다. 이 홀로의 몰입이 내면의 길을 열어 세상과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태가 겪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일수록 독서의 중요성은 가치를 더한다. 해서 서점과 도서관을 찾는 발길이 희망이다. 이 기회에 독서를 통한 삶의 성찰과 나눔의 미학을 권선해 보는 것이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보다는 미술과 문학에 대한 책을 선호해

서울 사직공원의 종로도서관에서 놀았다. 강보리밥 도시락 하나로 종일을 보낸 추억이 아스무레하다. 가난 속에도 책을 통해 희망의 빛을 보았고, 작가의 꿈을 키운 것이다. 그 도서관에서 대화는 없었지만 진지하게 책을 보는 모습들은 모두 꿈나무요, 인간 숲이었다.

그때는 독서의 방법도 방향도 없이 무작위로 책을 빌려 읽었다. 실은 내용파악도 부족했으나 의욕만으로 사서들의 눈치를 보며 들락거린 것이다. 당시에도 화가의 꿈을 지녔기에 기성 작가들과 미술사가, 평론가의 글을 공공거리며 보았던 기억이 난다. 대책 없이 학교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구러 세월의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나를 작가로 부르니 다 독서의 씨앗이 발아한 것이리라. 학창시절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바라보며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삶과 역사의 편린이 저 책속에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대로 우주였다. 그 신비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오다 어느 때부터는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생의 경험으로 살다가므로.

이제 날더러 사람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라면 서슴없이 '독서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겠다. 그 모습은 홀로이데 세상과 소통하는 일ियो, 자신을 돌아보고 내다보는 지혜의 발현이다. 그 향기가 그윽한 기운들이 모인 도서관은 오늘과 미래의 숲이다. 그곳으로 설레며 소풍가는 사람들을 그려본다.

독서칼럼 ②

나무에게서 배우는 지혜

글 나무의사 우종영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나니 나뭇잎은 더 짙어지고 푸르러졌다. 뇌우와 작달비에 잎들이 조금 상했을 뿐, 나무들은 여전히 건강했다. 나무들과는 달리 마을에서는 곳곳에 홍수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출 줄을 몰라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급기야는 나라에서 긴급지원을 하기도 했으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잘 대처를 해서 모범국가가 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만 잘 해서도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세계는 이미 하나가 되어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이 나무와 숲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 주변에 숲이 직장인 사람들이 많다. 숲 해설가, 숲 유치원 교사, 숲 치유사, 모두들 개점 휴업 상태여서 만나는 이들마다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었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표정이 밝고 건강해졌음에 놀랐다. 그동안 일에 쫓겨 숲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는데, 이번 일로 이 산 저 산 다니며 그곳에 사는 생명들과 눈을 맞추다 보니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즐거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 헤어진 지 40년이 넘는 군대 전우한테서 연락이 와서 반갑게 맞은 일이 있었다. 제대를 하고 바로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자주 만난 듯 스스럼없이 하루를 보냈다. 어떻게 날 찾게 됐느냐고 했더니 잠시 불일 보러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고 했다. 내친김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수소문했지만 허탕을 치고 우연히 나만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은 것은 분명히 많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장벽이 쌓였고, 경제가 어려워졌으며,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

하기도 했다. 누가 감염자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 서로가 의심하는 것도 코로나가 준 나쁜 선물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다. 모두들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며, 주변과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주어졌다.

그동안 사놓고 보지 못한 책도 보고, 나를 찾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행운은 덤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하늘까지 맑아 요즘은 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된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숲의 나무들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나무들도 하늘만 보고 자라다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 남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햇볕을 받는데 유리하겠지만 계속 자라기만 하면 뿌리와 너무 멀어지기 때문이다. 뿌리와 멀어지게 되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

성장을 멈춘 나무들은 숨을 고르고 주변 나무들과의 간격을 조정하며, 조심스럽게 가지를 낸다. 가지들끼리 겹치면 잎파라들이 일을 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나무들이 모진 비바람에도 견디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추며, 서로를 배려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나무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방식이 바뀐 지금 나무들이 사는 모습에서 지혜를 구한다면, 국가는 물론 개인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읽고 가는 책방되길

소소책방

진주 '소소책방' 운영 조경국 작가

Q

소소책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와
진주 망경동에 자리 잡은
이유를 알고 싶다.

‘밝을 소(昭)를 두 개 쓴 것이다. 예전 역사소설을 보면 ‘임금님 뜻을 소소하게 밝히시어’라는 문장이 나온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소소하다는 말이 이치를 밝힌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책방에 쓰면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 책방 규모도 작다 보니 작다는 뜻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이름을 짓기로는 ‘이치를 밝히는 책방’이라는 뜻이다.

처음 소소책방은 2013년도 경남과기대 앞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이사를 했고, 지금 망경동의 경우는 옆에 ‘도시달팽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과 인연이 닿게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망경동의 소소책방은 1년 반 정도 되었다.

Q

마흔을 기준으로 매해 3가지의 버킷
리스트들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콧수염 기르기,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투어, 유라시아
횡단 등의 버킷리스트들을 이루시고
또 매해 새로운 목록들을 구성할 것 같다.

버킷리스트 목록을 야심차게 세우지만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작가님만의 비결이 궁금하다.

책방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많이 힘들 수 있다. 마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마흔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언가 목표를 설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1년에 쉬운 거 2가지, 어려운 거 1가지를 세운다. 콧수염 기르기 같은 경우는 보름만 있으면 이를 수 있다.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투어의 경우는 2년 넘게 준비를 한 것 같다. 저축도 해야 하고 오토바이도 준비해야 하고 사전조사도 해야 했다.

가장 큰 버킷리스트는 40대에 1년 동안 여행자로 살아보는 것이었다. 이제는 꿈을 다 이뤘다.

이번 연도는 부산에 예술제본을 배우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우러 가지 못했다. 헌책방 이다 보니 책이 망가져 오는 경우가 많으니 예술 제본을 배워서 책들을 수리해 주고 싶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타고 제주도 일주하기’다. 9월에 강의를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책 원고를 쓰고 있는 게 있다.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Q

작가님의 소개 중 서로 관계를 묻기 어려운 책을 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아폴로 책방, 페이스북이 정말 쉬워지는 착한 책,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등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의 소재나 영감을 어디서 얻고 글을 쓰시는지 궁금하다.

첫 번째를 2003년도에 출간했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책이었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책을 두세 권 정도 쓰고 나니 관련 일이 들어왔고 책방을 차리고서는 전문분야가 달라졌다. 책방을 운영한 뒤로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아폴로책방의 경우는 2년 동안 8분과 함께 책방에서 진행한 초단편 쓰기 소설모임에서 시작한 책이다.

아무도 소설을 쓴 경험이 없었지만 다들 글을 잘 쓰셨다. 책을 묶어서 「손바닥에 쓰다」 등 두 권의 책을 발간했고, 진주문고와 책방에서 낭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이야기를 더 묶어서 낸 책이 바로 아폴로책방이다.



Q

‘필사의 기초’라는 책을 출간하셨던 만큼 작가님 하면 또 필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필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옮겨 적는다는 것에 막연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첫 필사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나 필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알고 싶다.

필사를 요즘시절에 하기 좋은 것 같다.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이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더 해볼 만하다.

대부분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경우가 많다. 아무 책이나 필사를 하게 되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자기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추천한다. 그리고 글이 짧고 완결된 책일수록 좋고, 이런 글을 한 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 작가의 책을 선택해서 정말로 그 문장들을 분해해 보는 느낌으로 필사를 해보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펜과 노트가 정말 중요하다. 필사는 펜과 노트를 가지고 하는 행위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에 드는 펜과 노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필사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선 혼자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에는 필사가 좋은 방법이고 필사를 통해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른 일을 할 때 힘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문구류에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소소책방 경남 진주시 망경북길 28

Q

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로서 소소책방이 진주 망경동에서 어떤 곳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알고 싶다.

어린이들도 편하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전 소소책방은 칠암동에 있었다. 그때 항상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자칭 문학소녀라는 두 친구가 초등학교를 마치면 책방에 와서 만화책도 보고 과자도 먹고 하였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 학원을 가야 해서 책방을 오지 못했다.

망경동의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앉았다가 책을 편히 읽고 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주에 관련된 책을 제가 모으고 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아동 추천도서



안녕, 나의 보물들

글쓴이_ 제인 고드윈

추천 사유 킬리는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그곳에 자신만의 보물들을 간직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보물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킬리. 킬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누구나 겪게 되는 상실과 성장의 경험을 담담하고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책이다.

추천인 의창도서관 정상희



빵 없는 뽑기 기계

글쓴이_ 광유진

추천 사유 제9회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주인공 희수가 빵 없는 뽑기 기계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책 후반부로 갈수록 책 속에 나오는 뽑기 상품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밝혀지면서 읽는 사람에게 먹먹함과 따뜻함을 전달해준다.

추천인 통영도서관 김다정



스몽스몽

글쓴이_ 소냐 다노프스키

추천 사유 독일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그림책(2018). 초현실적인 풍경의 암석층과 기이한 식물이 자라는 낯선 행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책이다.

추천인 충무도서관 김영주



책, 어디까지 아니?

글쓴이_ 김윤정

추천 사유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책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이해하게 되고 ‘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책에 대한 궁금증, 책의 역사,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책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추천인 하남도서관 김민중

한국 환상 동물 도감

글쓴이_ 이곤

추천 사유 대한민국 신화와 전설, 민담에서 전해져 내려온 신비한 환상 동물 이야기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35마리 환상 동물들의 핵심 정보를 모아서 흥미진진하고 풍부한 정보를 재미있게 담았다.

또한 두 가지 화풍으로 대한민국 전통 느낌이 나는 그림과 귀엽고 친숙하게 표현한 캐릭터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준다.

추천인 하동도서관 이채원

할머니의 용궁 여행

글쓴이_ 권민조

추천 사유 해녀 할머니가 용궁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준다. 바다에 물질하러 갔던 할머니는 광어의 부탁으로 용궁에 가게 되는데, 용왕 거북은 몸이 아프다며 할머니의 간을 내놓으라고 한다. 웬지 별주부전이 떠오르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돌아온다.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를 유쾌하게 담아낸 그림책이다.

추천인 함양도서관 류은선



코로나19와 싸우는 영웅들

글쓴이_ 김형석

추천 사유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전하는 감염 예방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서 어린이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만화로 쉽게 설명해 놓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방역을 위해 애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 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추천인 함안도서관 문희진

아름다운실수

글쓴이_ 코리나 루이켄

추천 사유 실수가 많은 아이들에게 추천하고픈 책.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아직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인 듯하여 추천해본다. 책의 말미에 있는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라는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추천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박경민

모퉁이 하얀 카페 심쿵 레시피

글쓴이_ 박현정

추천 사유 저마다 다른 고민을 가진 네 명의 아이들이 모퉁이의 신비한 하얀 카페를 찾아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담. 박현정 작가의 섬세한 심리 표현과 인물간 갈등 묘사가 돋보인다.

추천인 합천도서관 이지혜

청소년 추천도서

알로하, 나의 엄마들

글쓴이_ 이금이

추천 사유 오래된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열여덟 어린 신부는 달랑 신랑 사진 한 장만 손에 쥔 채 천리타향 포와(지금의 하와이)까지 찾아간다. 버들·홍주·송화, 이들은 이주민, 더욱이 여성으로 녹록지 않은 세월을 헤치고 당당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시대를 앞서간 새로운 가족 형태, 여성 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가슴 뭉클한 ‘여성 이민사’는 펼쳐 든 책을 좀처럼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흡입력 있고, 감동적이다.

추천인 의창도서관 이유진 통영도서관 윤현주

뽕뽕머리 앤

글쓴이_ 고정욱 외5명

추천 사유 청소년문학을 대표하는 여섯 작가들의 ‘페미니즘’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낸 책. 청소년의 시선에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자세를 우리에게 권하는 도서이다.

추천인 충무도서관 김영주



학교 가기 싫은 날

글쓴이_ 권희린

추천 사유 십대 시절 누구나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을 것이다. 사서교사인 저자의 경험과 조언을 담아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 하나에 책 한 권씩 연결된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라잡이 도서이다.

추천인 하남도서관 김민중

코끼리 새는 밤에 난다

글쓴이_ 신세은

추천 사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창시절, 진로와 학업, 가족관계나 외모 등에 관해 각자의 고민과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소설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인공 청소년들의 일상적 고민에 과학적 이야기들을 결합하여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단편 소설집이다. 과학과 소설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지지하며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새로운 문학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추천한다.

추천인 함안도서관 황동훈

시간을 파는 상점2

글쓴이_ 김선영

추천 사유 청소년인 주인공들이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힘든 현실 속에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올바른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극적인 매체와 게임들 속에 나의 시간과 삶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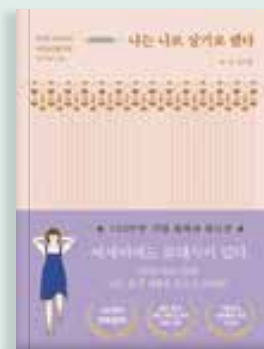
추천인 하동도서관 황연주

굴의 맛

글쓴이_ 조남주

추천 사유 책 속의 주인공 다윤, 소란, 해인, 은지는 항상 붙어다니는 각별한 친구이다. 열여섯 2월, 제주도로 함께 떠난 여행에서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약속을 한다. 10대의 앞에 펼쳐지는 여러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신의 길을 결정하며 한 뼘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

추천인 함천도서관 문서정



최초의 책

글쓴이_ 이민항

추천 사유 사서가 되고 싶은 윤수가 폐관을 앞둔 오래된 도서관의 비밀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에 이끌려 떠난 '최초의 책'에 관한 시간여행을 통해 도서관과 사서, 자신의 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추천인 함양도서관 이창훈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글쓴이_ 김수현

추천 사유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온전한 나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도서. 꾸준히 인기 있는 도서로서 저자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인과 나의 삶에 대한 비교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발전된 나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답게 사는 멋진 삶을 위하여!!!

추천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박경민

성인 추천도서

일곱 해의 마지막

글쓴이_ 김연수

추천인_ 의창도서관 이민영



전쟁 후 급격히 변한 세상 앞에 선 시인 '기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를 붙들려 하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속수무책의 현실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마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전쟁 후의 시인 '백석'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펭수의 시대

글쓴이_ 김용섭

추천인_ 하동도서관 강문희



210cm의 자이언트 펭귄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과정을 트렌드 인사이트의 관점으로 분석한 책이다. 펭수에 열광하는 2030세대의 시대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시선으로부터,

글쓴이_ 정세랑

추천인_ 통영시립도서관 임고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신여성 '심사선'과 삼대까지 이어진 여성들의 삶을 그렸다. 현대사의 비극과 이 시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부조리를 관통하는 소설이다. 심사선에게서 뻗어 나온 여성들의 삶은 기존 전통과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변화된 시대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언박싱

글쓴이_ 이홍

추천인_ 함안도서관 황동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갇혀 생각하는 '박스 사고'를 한다. 이 책은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세종대왕의 사례를 예로 들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활용하고, 생각의 한계를

부수는 방법을 소개해 놓았다. 세종은 '다름'을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것과 절묘하게 조화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창의력과 상상력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상 속 자신의 경험에 갇혀 다양한 사고의 박스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다.

숲길

글쓴이_ 마틴 하이데거

추천인_ 통영도서관 이은정



존재와 시간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숲길에서 묻는다. 예술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텐데, 그건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는 시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언어는 존재가 사는 집이

다. 존재가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언어라는 집을 닦고 가꾸어야겠지. 숲길(Holzwege)이란 풀이 무성해져 느닷없이 툭 끊어진 길이라는 옛 독일말이다. 길은 흩어져 있지만 같은 숲속에 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지금 우리도 숲길에서 시적 실마리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55년생 우리엄마 현자씨

글쓴이_ 키만소리

추천인_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박경민



바야흐로 100세 인생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누가 그랬던가? 책 속의 주인공 현자 씨는 환갑을 넘긴,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이제 당당히 외친다. 누군가의 역할로서의 내가 아닌 "정현자" 그대로 나로서 삶을 살겠노라고, 멋있는 생각이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치며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정현자' 엄마의 멋지고 파이팅 넘치는 홀로서기 에피소드. 진짜 꼭 우리 엄마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글쓴이_ 김지현

추천인_ 함양도서관 김현진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작가의 첫 산문집으로 어린시절 읽었던 문학작품 34편에 등장하는 생소했던 음식과 추억, 번역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이다. 그 시절 보기도 힘들었던 서양 음식과 식재료를 요즘은

마트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시대 흐름과 번역에 따라 그 맛은 같지 않다. 음식에 담긴 소설 속 의미와 사회적 배경, 번역의 묘미를 들으면, 하이다, 마틸다, 앨리스가 먹었던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케어

글쓴이_ 아서 클라이먼

추천인_ 하남도서관 안선희



정신과의사인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부인을 10년 동안 간병하며 보살핀 과정을 기록했다. 아내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저자의 간병기는 감동적이다. 하지만 의료시설에 부인을 맡기지

않고 가정간병을 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의사이지만 보호자로서 걱계 되는 소외감과 현실적인 문제는 '돌봄'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글쓴이_ 태원준

추천인_ 합천도서관 조영훈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70개국 200여 도시를 엄마와 함께 여행한 저자가, 이번에는 혼자만의 아시아 4개국(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배낭 여행기를 들려준다. 평소 접하기 힘든 나라의 여행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요즘 나만의 여행을 상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

쉼(休)이 필요한 그대에게

책 좀 빌려줄래?

글쓴이_ 그랜트 스나이더

추천인 의창도서관 백현희



세상 모든 책덕후를 위한 만화 에세이. 이 책은 책 컬렉터이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책 중독자'인 작가가 책에 보내는 오마주 같은 책이다. 시적인 글과 재치 넘치는 그림을 한 컷, 한 컷 따라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밀려오는 위로가 있다. 책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모이고 모여 잔잔한 감동을 자아낸다.

미술관에서는 언제나 맨 얼굴이 된다

글쓴이_ 이세라

추천인 함안도서관 황동훈



우리는 쉼을 이야기할 때 휴가나 여행 등을 많이 떠올리지만,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글쓴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작가로 전향하여 낸 작품이다. 힘들었던 시기에 그녀를 구한 작품들이 다른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 그림에, 화가에, 예술에 위로받고 치유되며 마음껏 행복했던 작가의 시간들을 오롯이 담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충만한 재충전의 기분을 느낄 것이다.

월인정원, 밀밭의 식탁

글쓴이_ 이연화

추천인 통영도서관 배희영



지리산 아래 온화한 자연의 품 구례 작은 마을에 깃든 저자의 자급자족하는 삶의 이야기. 처음 길에서 만난 실수와 실패, 아픔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쁨과 자연 속 생명의 온기와 위로를 담담히 전한다.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글쓴이_ 이미경

추천인 하남도서관 안선희



전국 구석구석 작고 낡은 구멍가게를 찾아 펜화로 그리고, 그곳의 이야기를 추억과 함께 들려준다. 한 장 한 장 가게 그림을 넘기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 사람과 공간에 대한 따스한 기운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글쓴이_ 김효경

추천인 하동도서관 강문희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저자가 변두리 마을에 이사를 하면서 얻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을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글쓴이_ 헤민스님

추천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박경민



코로나19 및 연일 길어지는 장마, 그로 인한 자연재해들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한 줄 한 줄의 위로. 현대인의 외로움, 가족관계와 우정, 소소한 행복과 삶의 가치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헤민 스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글쓴이_ 변지영

추천인 통영시립도서관 임고은



심리학자인 저자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는 말은 허상에 가깝다고 말한다. 자신을 일부러 좋아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보자.

시선으로부터,

글쓴이_ 정세랑

추천인 함양도서관 고세은



심시선의 가족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하와이로 간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로, 쉬면서 읽기 딱 좋은 청량한 책이다. 온화하고 리듬감 있게 이야기를 진행해가지만, 한편으로는 날카로움도 지니고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음에도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책이다.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글쓴이_ 마틴 베일리

추천인 합천도서관 배종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복도에 있는 그림 한 점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봤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소개할 책은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책이다. 책장을 넘기며 그림만 봐도 된다. 좀 더 관심이 생기면 그 작품의 배경, 해설을 읽어도 된다. 아마도 그림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마음 한 철 머무는 북스테이

남해 몽도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을 담으며,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위한 책 한 권을 꺼내보세요.
조용한 대화, 흘러나오는 음악, 단잠을 위한 로즈마리 한 잎까지
당신의 지친 일상 속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햇살이 쏟아지는 따스한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몽도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없으리라.
그 아이는 어느 날 우연히 아무도 모르게 이곳 도시로 왔고,
사람들은 곧 그 아이와 친숙해졌다. - 르 클레지오, <어린 여행자 몽도>

‘심이 필요한 당신에게 음악과 책,
그리고 별을 드릴게요.’



오롯이 당신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

통영 잇음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통영
오롯이 쉼을 위한 한옥 북스테이 '잇음'

‘잇음’은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하동집의 실제 모태이며, 사랑채는 화가 전혁림,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김춘수 등 많은 예술가의 흔적이 깃든 공간입니다. 긴 역사와 추억, 그리고 사연이 깃든 이곳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다독여주는 위로에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일상의 고단함과 아픔은 잇고
무언가로 온전히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오디오북, 귀로 읽는 책의 시대가 왔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핑계가 뭐 줄 알아?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 그런 핑계 식상하지 않아?”



최근 눈길을 끄는 오디오북 TV 광고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의
꾸준한 독서는 마음만큼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새로운 독서 방법이 귀로 읽는 책인
‘오디오북(audio book)’이다. 오디오북, 귀로 읽는 책의 시대가 왔다.

소리로 읽는 오디오북

오디오북이란 책의 내용을 소리로 표현한 책으로, 종이책의 단점을 개선한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IT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PC, MP3 플레이어, PMP, 휴대폰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가 되면서 출판계 틈새시장이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에 제한받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오디오북 이용자들의 청취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실버세대에게도 유익한 콘텐츠다. 책 읽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각장애인에게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노안으로 인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법도 간편하다.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바로 듣거나 MP3, PC, PMP 같은 다양한 IT 휴대기기로 내용을 내려 받아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책을 들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전철이나 버스, 자동차 등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독서에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에 쫓겨 서점을 방문하기 쉽지 않거나, 구입한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영상 콘텐츠에 피로감 느낀 독자의 선택

오디오북을 선택하는 데는 ‘편리함’이 가장 큰 이유다. 종이책은 눈으로 읽어야 해 장시간 독서 시 피곤함을 느끼기 쉽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디오북은 이어폰만 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편하게 책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책에 대한 관심과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또 비디오 콘텐츠에 지친 현대인들이 눈을 쉴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로 돌렸다는 분석도 있다. 글·그림 없이 오직 귀를 통해 소리만으로 들으니까 눈이 편하고, 장면 묘사를 통해 상상력이 자극돼 좋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글을 배우기 이전의 유아들에게 적합한 교육 매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오디오북은 기존의 CD·유튜브 시장 대표 격인 강연·강좌·어학교재는 물론, 명작소설·대하소설·드라마·웹툰·웹소설·백서·연감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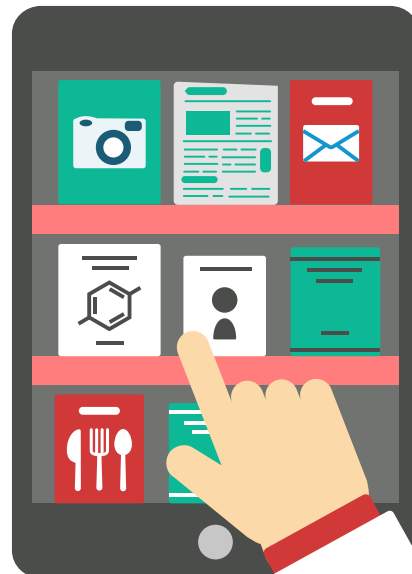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연결하면 쉽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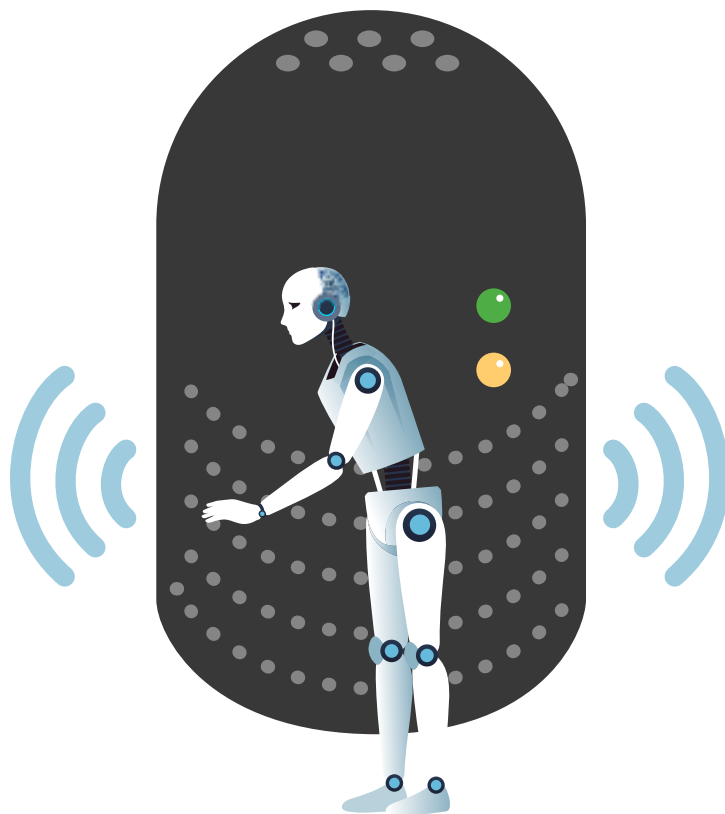
수년 전만 해도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학습용 오디오 CD나 연예인들이 낭독 해주는 책을 떠올렸다. 게다가 독서가들은 ‘모름지기 책은 책장을 넘기며 눈으로 읽고 사고해야지, 귀로 들어서 제대로 된 독서가 되겠느냐’는 핀잔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오디오북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진출은 물론, 국내 IT 업계와 출판사, 대형서점 등의 경쟁으로 소비자들로선 쉽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다양한 유료 콘텐츠 선택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플랫폼으로 하는 경남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권유한다. 경남도민이라면 지역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경남전자통합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오디오북 이용할 수 있다.



국내는 2000년부터 시장에 등장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중반부터 오디오북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여러 기업들이 오디오북 사업에 진출했다. 초기만 해도 카세트테이프, CD, MP3 기기로 어학이나 자기계발 콘텐츠를 듣는 데 머물렀던 오디오북이었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스피커의 확산 등 IT기술 발전에 따라 정제된 출판 산업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엔 사람이 직접 텍스트를 읽은 뒤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텍스트·음성 변환 솔루션' 같은 새로운 기술로 책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계음을 친숙한 목소리로 바꾸는 등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북은 편당 가격이 종이책이나 전자책보다 저렴한 데다, 경쟁적으로 월정액 가격을 내리면서 소비자 반응도 좋은 편이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 300억 원 규모

국내 오디오북 시장에는 한솔인티큐브 오디언(www.audien.com)이 지난 2006년 9월 문을 연 이래 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오디오북의 원조 격인 '윤소라의 소리소리'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국내에서의 오디오북 시장 확장성을 방증하고 있다. 외국어 분야 오디오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교보문고의 디지털교보문고(www.dkyobobook.co.kr)도 e-book, 동영상북 등과 함께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있고, 북리슨(www.booklison.co.kr)도 국내외 유명 강사 라이브 강의, 저자 직강 등 강연을 중심으로 한 오디오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북 전문 플랫폼인 '윌라', 오디오북을 비롯해 다양한 팟캐스트 채널을 갖춘 '팟빵', 월정액 독서 애플리케이션 업체 '밀리의 서재'도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메이저 출판사인 민음사는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협업을 통해 세계문학전집을 오디오북으로 펴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 오디오북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스토리텔'도 국내에 상륙해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관련업계는 올해 오디오북 시장 규모를 200억~3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2021년에는 2배인 500억~600억 원대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은 4조 원대로 예상된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스토리텔링·친환경적 소재 표현 중요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 구름마 •

구름처럼 떠다니며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



● 지리산과 하동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다. 지역주민들과 그림책 만들기, 작은도서관 설치, 하동 차 문화와 관련된 지역 축제 연계 등 지역문화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 문화 브랜딩사업,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스토리를 품은 마을 만들기 공공미술사업이다.

먼저 지역문화브랜딩의 대표사업은 〈하동의 다원 순례 사업〉인데 2018년에는 하동 야생차의 산지인 차밭을 연결한 투어링과 차자리 콘서트, 시 낭독회, 오래된 차밭 노래와 함께 춤도 배워보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2019년에는 차문화해설사 13분을 양성하여 배출하였다. ‘차밭길 예술을 품다’라는 주제로 설치미술 작가들이 함께 공공미술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설사 분들이 다원길에서 차의 유래나 역사 등을 설명해주셨다. 다른 사업으로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여행그림책시리즈1,2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12권의 그림책을 발행하였고 하동 천년의 차문화를 담은 〈하동에서 차 한잔 할까〉도 발행했다. 〈하동에서 차 한잔 할까〉에는 차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도 들어 있고, ‘다신전’이라는 오래된 차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만화로 풀어서 같이 넣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하동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4개 마을(진교노인회분회, 화개 상덕마을, 악양 정동마을, 적량 상우마을) 어르신들과 3권의 그림책을 만들었고 2019년에는 황천 상암마을, 북천 화정마을 어르신들과 2권의 그림책을 만들었다. 이 테마는 어르신들이 사는 마을의 정서를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며 올해는 악양 매계마을과 수업 중이다.

공공미술사업은 꾸준히 2015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악양면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책이 있는 정류소, 세상에서 가장 작은도서관, 암각 벽화, 솟대, 우체통, 화분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 그림책교실, 목공예 교실, 유튜브 교실 등이 있다.



● 이러한 문화예술콘텐츠를 기획하시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자 다른 분야의 작가님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름마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나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 내시고 운영하시는지 전반적인 기획과정을 알고 싶다.

● 문화예술기획자, 그림책 작가, 만화가, 화가, 출판사 편집자, 디자이너 등 시각 예술가들이 많은데, 각자 자신의 현장경험이 바탕이 돼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 많이 배우려고 한다. 실제로 차문화 사업을 할 때 차 관련 박사님께 차의 효능과 마시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기도 했고 차밭을 방문하기도 해서 차를 직접 덕어서 먹어보기도 했다. 오래된 차 역사가 담긴 책들도 분석하였다. 이런 것들에 바탕이 되어서 스토리텔링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맡아도 저희는 테마를 잡을 때 그 마을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한다. 벽화를 하나 그려도 마을에서 내려오는 옛날이야기나 전설을 담으려 하고 되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로 진행한다.



2018 - 2019



여행그림책시리즈 발행



● 문화예술로 설립된 경남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구름마을 설립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획이나 전시 및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 어르신들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그림책 관련 수업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 2018년에 진행했던 4개 마을을 다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보여드리니 어르신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 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어르신들이 작업했던 과정을 흑백사진으로 인화하여 같이 붙여놓고 나중에 같이 드렸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다.



●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를 다채롭게 만들고 계신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을'의 향후 계획과 목표를 알고 싶다.

● 9월 1일부터 시골마을미술관에서 놀자 두 번째 '차 문화, 예술이 되다'라는 전시가 오픈되는데 하동의 사계에 맞춰 전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센터 안에 마을 공방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커피숍과 책방, 식물공방, 유튜브 방송국, 마을 안테나숍으로 구성해서 마을과의 연대와 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쓸 생각이다. 더욱이 지역의 다른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리산과 섬진강을 사랑하는 예술인분들과도 관계 형성을 구축하고 싶다.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 분들이 대부분이 타지분들이다. 이분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름마을이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이다.



하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독서의 달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과년도 정기간행물 배부, 블라인드 북 대출, 바리스타 강좌,
장애 이해 교실 9월 2일~30일 / 3층 자료실
참여대상 : 거제시민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독립출판물 전시, 과년도 정기간행물 배부 9월 2일~30일
4층 자료실 / 참여대상 : 도서관 이용자

거창도서관

어린이 인형극 공연 9월 9일~9월16일 / 거창군 면단위 초등학교(2개)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의 기억을 걷다 9월 12~13일 / 다목적강당, 수로왕릉 외 유적지 9곳
참여대상 : 초등 고학년~중등 자녀를 둔 가족 10팀
주요내용 : '우리가 몰랐던 김해 이야기'란 주제로 가야사 중심으로
조영된 김해의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를 알아보는 강연과 탐방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손주는 아무나 보나〉박경희 작가와의 만남 9월 13일 14:00 / 커뮤니티실

진영도서관

도서관으로 오세요 / 9월 / 어린이실, 종합실
주요내용 : 책 담아가세요(가방 증정), 프리패스 쿠폰, 잡지 나눔,
N행시 쓰기, 읽어보고서, e북 다독왕, 그림 있는 도서관, 북큐레이션,
달콤한 수요일 등

진영한빛도서관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출판사 대표와의 만남, 지역작가
와의 만남, 버블매직쇼, 과년도 잡지 무료배부, 도서 전시,
코로나19 끝내트리 등 9월 1~29일

남해도서관

김경희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9월 12일 15:00 / 3층 강좌실2
인문학 초청 강연 <고규홍 작가> 9월 19일 14:00 / 3층 강좌실2

밀양도서관

감성충전! 금요일 인문학 데이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나는 행복한가?> 9월 4일, 11일 / 소극장

사천도서관

음악, 인문학 선율을 따라가다(9월 4~25일 매주 금요일 10:00),
놀면 뭐하니? 북포유(9월 8~25일) / 사천도서관 임시관사

산청도서관

샌드아트&풍선아트 9월 12일 / 13:00 시청각실
네온사인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는 내! 9월 12일 / 10:00 시청각실

양산영어도서관

Back to school 9월 6일 14:00 / 15:30 북카페
Hidden books 9월 8일~29일 / 자료실

진양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북앤돌필', 9월의 북챌린지,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그림책 엮서 나눔, 북크로싱 '독(篤)독(讀)찰카! 독서가족사진,
진양 정원도서관, 독서명언 포춘쿠키 나눔, 온&오프 백일장 '내가
장원', 추천! 그 시절 내가 사랑했던 책들 / 9월

진주시립도서관

book적 book적 한 컷(연암도서관), 원화 전시(연암, 어린이전문,
도동어린이), 대출 연체 클린(clean) 이벤트(연암, 어린이전문,
비봉어린이, 도동어린이) / 9월

창녕도서관

2020 책으로 만나는 행복한 창녕 9월 중

경남대표도서관

그림책 원작 토이 뮤지컬 9월 5일 / 대강당
대상 : 가족 20팀(팀당 4명 제한)

마산회원도서관

숲내음 책내음 독서축제 한마당 9월 12일 / 내서읍 삼풍대공원

진해도서관

배한봉 작가특강, 가을의 낭만과 함께! 낭송낭독음악회, 나의 인생 책,
우리의 서재, 우리가족 개성이 톡톡, 가족체험행사, 즐거운 집콕 가족
체험행사 / 9월

창원시립의창도서관

2020 창원의 책 작가 릴레이 특강 9월 12일 10:00 / 명곡도서관 4층 다목적홀
대상 : 초등학교생 및 학부모 30명



밀양도서관

감성충전! 금요일 인문학 데이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나는 행복한가?> 9월 4일, 11일 / 소극장

통영시립도서관

손으로 읽는 책 '점자도서' 전시, 다문화 인형극 <까만달걀>, 영화로 만나는 책, 한지공예 서랍장 만들기, 어린이 명심보감, 독서마라톤 응원 이벤트, 굴러굴러 그림책 원화 전시 / 9월 / 시립도서관 및 충무도서관

하동도서관

작가와 함께 떠나는 인생산책(9월 5~26일), 책, 사람을 읽다 (9월 19일) / 시청각실

함안군립칠원도서관

우수독서회원 선정, 원화 전시, 독서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9월 26일

함안도서관

행운의 룰렛을 돌려라 9월 1일~29일 / 어린이자료실
대상 : 어린이 도서대출회원

함양도서관

테마도서와 원화프린트 전시, 책제목 문장 만들기, 어린이독서 퀴즈 응모행사, 과월호 잡지 나눔, 연체 해제, 책사랑 릴레이, 이용자가 추천하는 책 전시 및 목록 배포 / 9월 1~29일

강 연

거제시립하청도서관

그림책 작가 릴레이 강연 12월까지(매월 1회, 총 6회)
강연자 : 9월 정진호, 10월 이분희, 11월 경혜원, 12월 고대영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김성태 작가초청강연회 9월 17일 19:00 / 시청각실
박종채 작가초청강연회 10월 15일 19:00 / 시청각실

김해도서관

저자와 함께하는 강연 릴레이 9~11월 / 시청각실
강연자 : 서윤영 9월 19일, 김지혜 9월 26일, 이희영 10월 24일,
박준 11월 21일

창원도서관

작가와와의 만남 :마녀체력의 저자 이영미 9월 5일
경남의 스토리텔링 : 소설로 만나는 경남 10월 17일, 10월 31일, 11월 7일
별관 시청각실

인 문 학

고성도서관

신화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다라는 주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신화속 의미 찾기 등 인문학 강연 9월 9일~11월 18일 10:00 / 세미나실

김해도서관

생각하는 인문학 10월~12월 / 시청각실

진영한빛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8월 20일~10월 29일 / 다목적홀

하남도서관

맛있는 인문학 외 생각하는 인문학 9월~11월 / 어린이실 / 종합자료실

삼천포도서관

다빈치의 비밀 노트 속 시적 상상력 9월 19일 14:00
다빈치와 모나리자 10월 22일 14:00
다빈치의 드로잉 11월 18일 14:00



진양도서관

지역인문학센터 10월 24일 13:00 / 시청각실

마산도서관

2020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9월~10월 / 시청각실
강연자 : 서기원, 권영민, 박승국, 최원형
2020 공감 인문학 9~11월 / 시청각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명사의 SEA間 9월~11월 / 1층 구암홀
강연자 : 은유 9월 26일, 서민 10월 31일, 하리하라(이은희) 11월 28일

진해도서관

찾아가는 인문강좌 - 여행과 힐링 10월 6~27일 14:00 / 다목적실

하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창원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마음을 두드리는 올림의 글쓰기), 일상의 인문학
(로자 이현우와 함께하는 영국문학) 9월~11월 / 별관 1 시청각실

통영도서관

여행과 힐링의 인문학 11월 21일~12월 19일(매주 토 14:00) / 제1강좌실

함안도서관

2020년 길 위의 인문학 9월 1일~22일(매주 화 14:00), 탐방 9월 19일
시청각실, 사천 박재삼 문학관, 남해 유배문학관 등

작가와의 만남

고성도서관

〈나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 작가 초청강연 9월 19일 10:00 / 시청각실

김해기적의도서관

‘내 안의 이야기를 펼치는 법’을 주제로 「편의점 도난사건」을 쓰기
까지의 이야기 9월 15일 10:00 / 다목적강당

밀양도서관

〈어린이왕자와 깊이 만나는 즐거움〉 저자 최복현 작가 초청강연회
10월 23일 / 소극장

삼천포도서관

한 책 읽기 도서 ‘안중근과 건다’ 저자 박영희 작가 초청강연회
9월 26일 14:00

양산도서관

윤광준 작가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9월 12, 19일 14:00 / 3층 시청각실
심윤경 작가와의 만남 11월 14일 13:30 / 3층 시청각실

경남대표도서관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등 비문학 베스트셀러 작가 박웅현 초청강연
9월 12일 / 대강당 / 중학생 이상 70명

마산합포도서관

‘사는 시간, 쓰는 시간’ 김달남 작가특강
9월 20일 14:00 / 3층 대강좌실

진동도서관

‘한 책 작가와의 만남’ 11월 중 / 강좌실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삼천포도서관

일 반 : 북적북적 서평, 무슨 책 읽어?, 북큐레이션, 한 책 읽기,
내 손안의 전자책
어린이 : 집에서 책 읽자, 집콕책놀이

기타 프로그램

거제시립장평도서관

처음 시작하는 라탄 공예 외 4개 프로그램 9월~11월
장평도서관 5층 세미나실 / 성인 및 아동

거창도서관

가족이 함께 만드는 우리집 소품 10월 10일~31일 매주 토요일 / 시청각실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콩닥콩닥 성교육 교실 9월 4일~12월 4일 매주 금요일 15:00
동화사랑방 / 초등 3~4학년 15명

진영도서관

도서관 생일이에요 11월 / 어린이실, 종합실

사천도서관

어른을 위한 그림책테라피 9월 2~23일
도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9월 2~11월 25일
비대면(온라인) 독서퀴즈,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임시관사 문화강좌실

양산시립도서관

“책으로 통하는 양산” 〈제5회 독서골든벨〉 독후감 공모전
8월 4일~9월 29일 / 양산시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시상내역 : 양산시장상 13명



의령도서관

독서'대'하기 9월 1일~18일 / 어린이자료실

대상 : 유아 및 초등 대출회원

진주시립도서관

민간약초 생활한방 외 14개 / 9~11월 / 연암, 어린이전문, 비봉 어린이, 도동어린이

창녕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관찰>, <마음표현>, <다름과 틀림> 등

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9월 중 / 예술 신나는 집 지역사회센터

대상 : 초등 2~5학년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파도의 선율 힐링공연 / 2층 지하마루

밴드노래공연 9월 12일 / 전자현악공연 10월 4일

뮤지컬갈라쇼 11월 14일 / 어린이마술쇼 12월 27일

마산합포도서관

베트남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기다란 이웃이야기 9월 6일 14:00

3층 대강좌실 / 홍유진(베트남 다문화강사)

마산회원도서관

꿈과 희망을 나르는 <찾아가는 책 이야기> 운영 9월~11월

대상 : 마산회원, 합포구 내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104명)

책빛 가득 독서문화행사 12월

중리초등통합시설도서관

스탬프 미션 여행 9월~12월 / 대상 : 창원시 관내 초등학생

매월 주제관련 독후활동 미션수행완료시 기념품 제공

진동도서관

'비긴 어게인' 재개관 기념행사(인형극, 시월의 밤 음악회, 일요시네마 등)

10월 10일~11일 / 도서관 야외 및 강좌실 등

창원도서관

2020년(제16회) 경남독서한마당 9월~12월

참여대상 : 도민 및 초·중·고등학생

독서공모전

9월 17일 마감 / 10월 말 결과 발표, 12월 수상작품집 발간

독서진흥행사

전년도 수상작품 순회전시(12개 도서관, 책꾸러미 나눔(9개 기관)

창원시립의창도서관

고향의봄- 토요 영어그림책 놀이 등 2개, 명곡- 책으로 떠나는

서양미술사 여행, 독서 하브루타 등 9개 (하반기 문화교실)

8월 18일~11월 12일 / 고향의봄도서관, 명곡도서관

통영도서관

2020 도서관지혜학교 9월 8일~11월 24일 / 1강의실

대상 : 성인(신중년세대)

통영시립도서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감성코칭(결혼이주여성 대상), 오페라&컬처,

책이랑 지구촌 여행, What is ENIE About? Level 1-2 등

(하반기 문화프로그램)

9월~11월 / 시립도서관 및 충무도서관

하동도서관

취약계층 프로그램 7월~11월

청춘 이야기 여행 8월 5일~9월 23일 / 노인대상

Book치고 얼렁뚱딱 7월 20일~11월 2일 / 어린이 대상

함양도서관

생각 톡! 퀴즈 팽! 어린이 독서퀴즈! 9월~12월

어린이자료실 및 홈페이지



합천도서관

한 권, 세상을 테이크아웃하다 9월 1일~23일

합천도서관 온라인 홈페이지 / 청소년, 성인 대상

성인 대상 '민간약초 생활한방', '시낭송 교실' 운영 예정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9월~10월 / 평생학습실

NEWS

공공도서관 소식

경남대표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임시휴관 중 색다른 독서문화서비스 제공

경남대표도서관은 임시휴관 중에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인문학 강연, ▲북 워킹 스루, ▲24시간 스마트도서관, ▲경남통합전자도서관 등 다양하고 색다른 독서문화서비스를 진행한다.

인문학 강연인 「인문독서아카데미」가 9월 2일부터 10월 21일 까지 총 7회에 걸쳐 비대면(네이버 밴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운영되며, 영화 속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찾아가는 「북 워킹 스루」와 바쁜 직장인을 위한 「24시간 스마트도서관」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또한 경남대표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도내 시군 도서관 회원이라면 「경남통합전자도서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PC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색다른 독서문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도민의 독서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할 것이다.



마산도서관

도서관 공간 재배치 사업 추진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황현경)은 '미래교육을 꿈꾸는 도서관 공간 혁신'을 주제로 도서관 공간 재배치 사업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산도서관 건물은 1988년 신축 개관하여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활용의 제약으로 진화하는 이용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산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도서관 공간 재배치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미래교육을 꿈꾸는 도서관 공간 혁신' 사업을 위해 37억 원의 공간 재배치 예산을 확보했다.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 및 공간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공간 개념에 대한 특강을 운영하고 공간 재배치 TF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었으며, 다양한 도서관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해 도서관 공간 재배치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도서관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의 조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 혁신을 통해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한 미래형 독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산도서관은 2020년 하반기에도 공간 재배치 사업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해기적의도서관

〈 2020 북스타트 플러스 및 보물상자 꾸러미(2차) 배부 〉

-일 시 : 2020. 9. 1(화) ~ 9. 25(금)

-장 소 : 김해기적의도서관 사무실

-참여대상 : 김해시 거주하는 19~36개월(2017.1.1.~2018.6.30.출생) 어린이 47명, 37개월~미취학(2014.1.1.~2016.12.31.출생) 어린이 82명

-주요내용 :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이 들어있는 꾸러미 배부



마산회원도서관

복합 문화행사 “숲내음 책내음”을 운영

내서도서관에서는 푸른내서주민회와 함께하는 복합 문화행사 “숲내음 책내음”을 운영한다. 올해는 ‘평등’과 ‘환경’을 키워드로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노인생애체험 및 세계전통놀이체험 등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우드버닝 팬 드로잉,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다육이 배부, 에코가방꾸미기, 코바느질 마스크걸이 만들기, 라탄 공예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도서 원화 전시 및 알뜰책장터 운영 등 책과 숲,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김해도서관

다양한 필사 행사 진행

김해도서관은 슬로 시티 김해의 문화인프라로서 초스피드 시대 도서관에서 삶의 여유와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필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50명이 한 권의 고전 명작을 끝까지 필사해 보는 ‘손으로 읽는 고전 명작’ 행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필체를 시 모음집에 담아 보는 ‘함께하는 힐링 필사’ 행사가 11월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는 필사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개성 있는 필체로 한 권의 책을 완성해 가며 삶의 여유와 힐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남해도서관

내 생활의 활력소, 시 쓰기

- 시 쓰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배양
-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시를 이해하고 세계 속의 자아를 인식하는 동기 부여

생생한 시 쓰기, 가슴 뛰는 시 쓰기

기간: 7. 2.(목) ~ 11. 19.(목) 오후 7시

총 20회 운영(일부 비대면 강의 진행)

- 장 소 : 강좌실2

- 대 상 : 지역민 20명

- 강 사 : 송인필(남해 지역 시인, 시집 “비밀은 바닥에 있다”), 서정홍(농부 시인, 저서 “시의 숲에서 삶을 찾다”)

- 비 고 : 11. 19.(목) 저녁 7시, 출판 기념회 개최 예정

거창도서관

도서관 정문 보수공사 시행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도서관 정문 보수 공사를 통하여, 거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한다. 기존의 도서관 정문은 도서관과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승용차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이번 정문 보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서관 정문이 도로와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아 도서관 이용 승용차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이미지를 생성한다.



사천도서관

사천도서관의 전면 개보수공사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임시관사에서 도서관 운영

- 운영기간 : 2020. 7. 1.~2021. 2. 28.
- 운영일시 : 화요일~일요일 09:00~18:00 / 월요일 휴관
- 운영내용 : 신간도서 위주 대출·반납
상호대차 및 택배서비스
독서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임시관사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유천길 214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마산지혜의바다, SNS로 다양한 정보 제공

-홍보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독서서비스 홍보-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토티)를 통해 각종 도서관 행사안내와 함께 비대면 독서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일 사서가 추천하는 '지혜의바다가 추천하는 책 한 권', 도서관 이용자가 직접 추천하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시 한 편을 읽을 수 있는 '수요일은 詩요일' 등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독서정보를 제공하여 제한된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지혜의바다 홍보 서포터즈 <지혜의 등대지기> 역시 2020년 2기 활동을 시작하여 블로그와 SNS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소식과 직접 참여한 온라인 행사 후기 등 경남도민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각화된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색다른 시선에서 도서관의 행사를 홍보하고, 지혜의바다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제도서관

도서관 시설 개보수공사로 인한 휴관

재개관일: 2021. 1. 2. (토) 예정

- 휴관 기간: 2020. 8. 15. (토) ~ 12. 31. (목)
- 휴관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시설 전체
- 휴관 사유: 도서관 시설 개보수공사

함양도서관

도서관 속 작은 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관장 박영서)은 매월 다양한 주제의 테마도서 전시와 원화아트프린트 전시를 구성하여 도서관 속 작은 전시회를 운영한다. 테마도서 전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독서 습관’, ‘세종대왕과 한글’, ‘환경의 소중함’, ‘크리스마스’ 주제와 관련한 도서를 선정하여 어린이자료실에서 진행된다.

그림책 원화의 느낌을 살린 아트프린트 전시는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나만의 특별한 옷(줄리 크라우리스 지음), 오누이(허정윤 지음), 코코의 이상한 하루(마리우스 마르친케비처스 지음) 작품이 순서대로 전시된다. 작은 전시회에 관련된 도서들은 전시 중에도 대출 가능하다.

수많은 책 속에서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어린이들과 자녀와 함께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행복한 독서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진해동부도서관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동부도서관은 2020년 생활 soc사업과 연계하여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를 8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83일간 시행한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제2신항 건립 계획으로 창원시 진해구 동부지역(용원일대) 인구 증가로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실내외 시설 노후화(2006년 개관)로 인한 도서관 환경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새로운 문화 공간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자료실 내 책 읽어주는 방, 강의실,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환경 개선 및 기존 휴게실을 북카페로 조성하여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 또한 강화해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열린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도서관

DVD 자료 내가 직접 골라 대출해요!

우리도서관은 DVD자료를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직접 자료를 선택하여 관외로 대출해 갈 수 있도록 DVD서가 개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따로 신청하여 이용하던 운영방식(폐가제)을 직접 보고 선택하는 개가제 운영으로 변경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우리도서관은 6308점의 DVD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성인회원 1인 2점 1주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DVD 서가가 이용자들의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료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률이 향상되고, 자료 선택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천포도서관

삼천포도서관 ‘2020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관장 윤선혜)은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선정되어 8월 5일 업무협약 및 현판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삼천포도서관은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을 통해 최신의 치매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 관련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치매안심센터 사천시보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에 따라 치매 이해 교육을 통한 치매 파트너 등록, 일반자료실 치매 코너 설치,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 협조 등의 내용으로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사회 관계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사천시보건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치매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진영도서관

진영도서관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기간에 종합자료실과 2층 복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하였다.

종합자료실은 북카페형 좌석을 배치하고, 색 바랜 서가와 벽면을 새롭게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독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창문이 없는 안쪽 서가와 좌석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2층 복도는 스페이스 월(wall)과 조명을 설치하여 전시 공간으로 특화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의 상시 전시가 어린이를 포함한 전 세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통한 문화 향유의 즐거움과 책과 이야기로 연결되는 장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동도서관

진동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사업

- 공사기간 : 2020. 8. 13.(목) ~ 10. 8.(목)
- 재개관일 : 2020. 10. 10.(토)
- 공사내용 : 도서관 외벽공사 및 창호 전면 교체

창녕도서관

도서관 별관 환경개선공사 예정

- 공사기간 : 2020. 8. 17.(월) ~ 11. 30일(월)
- 공사내용 : 리모델링 사업(별관 외벽, 바닥교체, 천장, 계단, 강좌실 재배치 등) 더 나은 환경과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공사

합천도서관

어린이 점자도서 및 큰글자도서 코너 운영

합천도서관에는 어린이 점자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점자도서에는 묵자도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림책이기 때문에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점자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인지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큰글자도서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큰글자도서는 일반도서의 글자를 읽기 어려운 약시나 노인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소설 등 다양한 장르가 구비되어 있다. 올해도 큰글자도서 77권을 구입·비치하여, 중장년층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두 코너 이외에도 다문화 도서, 치매 도서, 청렴도서, 향토자료 코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 사람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이 도서관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도서관

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해졌어요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2020년 상반기에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2종을 확충하였다. 유아자료실 내에 수유실이 없어 아기와 함께 자료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작지만 알찬 수유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을 위한 휴게실을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 설치하였다. 이 휴게실은 특히 어린 자녀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함께 온 부모가 대기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전망이다.



의창도서관

2020 창원 북-페스타

- 일 시 : 2020. 10. 17.(토) ~ 10. 18.(일) 2일간
- 장 소 : 성산아트홀 일대
- 참여대상 : 시민
-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등 다양한 독서문화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창원시 종합 독서문화 축제로 40여 개의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운영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올해부터 초등 북스타트 운영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독서문화 활성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1학년 425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하였다. 초등 북스타트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책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책꾸러미는 북스타트 코리아가 선정한 그림책 2권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 가이드, 한마음 도서관 소식지, 도서관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독후활동으로 독서감상화 그리기를 진행하여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진주시립도서관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은 1985년에 개관하여 35년 만인 2020년 7월 1일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하였다.

입구에 북카페를 설치하고 1층과 2층을 문이 없는 오픈형 공간으로 꾸며, 독서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독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였다. 또한 영어도서 자료실, 동화구연 키오스크, 신간·추천 도서 코너 등을 신설 및 확대하여 이용자가 편하고 쉽게 도서를 이용하도록 설계했다.



내 삶 속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임지영 (사서)

도서관은 나의 직장이다.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을 하니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을 만나고 대화한다.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교수님께 주로 듣는 말이 '책을 좋아해서 문헌정보학과를 택한 학생들이 많다. 사실은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다. 전공 공부를 할 때에도 도서관에 실습을 나갔을 때에도 교수님의 말씀은 수년간 이해가 되지 않는 숙제였다.

1년 7개월 정도 도서관에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교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나마 이해를 하는 중이다. 물론 담당하고 있는 업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이용자 응대이다.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것은 '기초'의 의미가 아닌 '토대'라고 생각한다. 어떤 업무는 하기(do)가 아닌 해내기(manage to do)다.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용자 응대는 내게 '해내기' 업무였던 날이 있다. 그날의 도서관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었고, 어떻게 해야 빨리 회피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가득했던 하루였다.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사서는 책을 매개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이 매개체이며,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명확하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다. 직장으로서의 도서관은 생각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 가진 일로써 모르는 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받는 '사서'라는 직업은 꽤나 매력적이다. 따뜻하게 무심할 줄 아는 태도로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거제시립장평도서관 진영상 (이용자)

저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 진로, 경제적인 안정까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준 곳입니다. 2005년, 초등학생 때 독후감을 위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한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문학도서, 전공서적, 투자 관련 정보를 얻는 등 제 발길은 도서관으로 종종 향하고 있습니다.

책이 모이면 경제적으로 저렴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좋지 않기에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지식이나 감성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최고의 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와 프로그램, 학습실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는 도서관을 하나의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했습니다.

내 삶 속 도서관, 저에게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졸업을 앞두고, 도서관에 첫 발을 디디며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박소민 (사서대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날. 저는 운이 좋게도 졸업과 비슷한 시기에 도서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도서관에 관한 공부를 하며 꿈꾸어왔던 자리인 이곳에서 일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에게 거창도서관은 추억이 많은 장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책을 읽으며 부모님을 기다렸고,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열람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면 친구들과 야식을 먹으러 가던 기억들이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제 삶 속 소중한 공간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도서관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시거나, 이름을 기억해주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한 번은 책을 읽으러 자주 온다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심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또 다른 누군가가 돌아봤을 때, '도서관은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되도록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이용자가 아닌 근무자로서 첫발을 디디며 새롭게 다짐해 보는 날입니다.

거제시립옥포도서관 손희태

20대의 젊은 나이로 오대양을 누비며 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형선박 건조에 동참하기 위해 거제도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어언 3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두 아들은 결혼을 하여 각각 가정을 꾸렸고, 나 또한 정년퇴임 후 다소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부가가치 있는 일을 찾던 중, 거제시립도서관에서 야간학습관리자를 찾는 공고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관리 공고문이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내가 자녀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남다르게 교육시킨 성과가 있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거제도 생활에서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겪었던 경험공유를 목표로 응시한 결과 그런 나의 마음이 통했는지 합격하여 1월 초부터 옥포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도서관에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비치하고 있었다는 점과 젊은 부모들이 어린 꼬마들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원하는 책들을 한아름 안고서 가족 모두가 기뻐하며 도서관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옥포도서관은 나에게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 삶 속 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오휘은 (사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도서관은 어쩐지 내가 알고 있는 도서관과 조금 달라서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종종 있었다.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참고봉사를 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모습은 내가 종종 책을 빌리기 위해 가는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1년을 휴학해 돈을 모아 떠난 유럽여행의 초입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도둑맞게 된다. 호기롭게 홀로 나선 여행이었으므로 도움을 받을 곳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숙소에 있는 컴퓨터는 너무 옛날 컴퓨터라 한글이 입력되지 않았고, 룸메이트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적어도 가족에게 생사여부를 알려줘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에 들어온 것은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이었다.

더듬거리는 영어로 ‘나는 여행자고, 폰을 도둑맞았고, 가족과 연락을 해야 하고.....’ 황설수설하는 나를 안정시키며 직원은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주었다. 둥그런 책상들 위로 컴퓨터들이 열을 세워 나를 맞이해주었고, 직원들의 걱정을 잔뜩 받으며 나는 가족들과 무사히 연락할 수 있었다.

그날, 그 도서관이 내게 보여주었던 환대는 나로 하여금 가는 모든 여정마다 도서관을 찾아다니게 하였다.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오스트리아 국립 도서관,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 회원증을 만들어야 했던 브뤼셀 도서관, 어린이들의 낯선 경계를 잔뜩 받아야 했던 베를린의 어느 공공도서관까지.

그저 놀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나는 내 짐 빼고 모두 낯선 도시에서 내게 유일한 미소를 지어준 도서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하게 될 도서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받은 환대를 나는 흉내라도 내고 있는지 아직도 고민이 많은 하루하루지만, 앞으로의 도서관과 나의 역할을 생각할 때면 여전히 암스테르담 한가운데 있던 도서관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임혜원 (주말대체인력)

"엄마 엄마, 저기 뽀뽀빵 지나가요"

어느새 아들은 아장아장 걷고 말도 제법 늘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호기심으로 바뀔 무렵, 세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 활발한 아이라 잘 앉아 있을지 우려도 됐지만 조곤조곤 설명해주면 알아들으리라 생각했다. 다행히 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하는 동화책을 재밌게 읽었다. 책 속에 파묻혀 있는 시간은 참 평온했다. 다락방처럼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평화로운 시절이었다. 도서관 유리창으로 보이는 공원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봄여름은 봄여름대로 제각각 이뻐다. 책을 빌리고 나와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 아래서 아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단풍나무도 이뻐지만, 그보다 배시시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귀여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몇 년 뒤 나는 도서관 주말 대체인력 공고를 보고 지원해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고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그래도 책과 함께 하는 공간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다. 가끔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면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커커이 쌓인 때를 씻어내듯 마음속 구정물도 씻겨 내려갔다. 오래전 우연히 책 제목에 이끌려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 '가시도 아프다'란 창작동화다. 주위의 모든 식물과 곤충들에게 따돌림과 구박만 받던 가시가 참새로 인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다. 참새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가시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가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친구를 만나면서 향기로운 꽃으로 다시 피어난다. 마지막 이야기의 여운이 짙게 남는 책이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그러진 얼굴, 어눌한 말투, 균형이 맞지 않는 몸. 난 두 귀를 쫓긋 세우고 입 모양을 살핀다. 한 마디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 집중한다. 도서관을 찾은 뇌병변 장애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장애인의 비율은 소수다. 장애 때문에 책 읽기가 불편해서일까?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불편해서일까?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간다. 몇몇 분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보호자와 동반해 오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다양한 분야 수십만 권의 책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지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 일하며 스쳐간 많은 사람들.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분들도 많았다. 찰나에 스치는 인연도 인연이라는데 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도서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책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나지막이 인사를 건넨다.

희망을 찾아서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최미자 (이용자)

제우스가 불을 알아버린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 상자 안에 온갖 재앙을 넣었다. 그리고 절대 열어 보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시기, 질투, 미움 등은 밖에 있는 판도라의 호기심과 충동을 먹으며, 서로 찢르고 찢릴 수밖에 없었다. 상처 나고 굳은살로 덩치는 커져서 상자를 여는 순간 세상 밖으로 튕겨 나왔다. 놀란 판도라는 황급히 닫았다. 안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리스 신화의 한 부분을 재구성했다.

나이 60줄에 들어서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년퇴임, 건강, 은퇴 이후의 삶, 자식 걱정 등등. 밀려 나온 근심은 때로는 하나씩 어느 때는 서로 손잡고 커다란 모습으로 나의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정년퇴임은 예견된 일이었기에 나름대로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머리와는 달리 40여 년 직장생활로 인이 박혀 두꺼워진 삶의 페이지가 갑자기 얇아지는 현실 앞에서 심장은 턱없이 두근거렸다가 느려졌다 하면서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더 짧을 것 같다. 나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까?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내 삶을 내려놓으며 새삼스럽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나에게 대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미를 묻고 답을 찾아야 했다.

발길은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일체유심조라 했던가. 독서 모임 참석을 위해 드나들 때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책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옛말이 생각나고, 서가에 차곡차곡 꽂아놓은 모습을 보니 영키었던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았다. 좋은 변곡점이 될 것 같은 예감으로 모처럼 설레었다.

여럿이 한 공간에 모이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나를 벗어나고 침묵 속에서 홀로 두기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나의 윤곽을 매만지며 말없이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종이를 손으로 만지고 책장을 넘겨 가며 읽을 때 나는 소리와 촉감을 느끼며 연필로 쓰는 일에 집중했다. 작가와 다양한 등장인물의 삶의 이야기를 반추하며 독후감을 요약하고 아름다운 문장과 이어지는 대화를 필사했다.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이 아니었다. 삶의 여정을 나란히 해보며 인간의 삶에 관한 질문과 답을 찾자 하였다. 읽고 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를 바꾸어 놓았다. 질퍽했던 마음이 보송보송해지는 어느 순간 나의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판도라가 황급히 닫아버린 상자 안에 남아 있는 희망의 덩치가 있을까? 있다면 작고 단단하지 싶다. 마음먹고 찾고자 해야 보이니까. 새삼스레 나의 희망을 찾아 상자 속에 손을 넣어보았다. 문학을 향한 희망은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소중하게 안았다. 사는 일에 묻혀서 걱정과 근심에 밀려서 펼치기와 접히기를 되풀이했지만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수필 교실에 등록하고 같은 꿈을 안고 함께 가는 선후배 문우들을 만났다. 서로 응원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얇아진 삶의 페이지를 조금씩 메꾸어 갔다.

수필 문예지의 신인상 수상으로 작가로 등단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기쁨을 맘껏 누렸다. 도서관이란 텃밭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언제나 맘껏 읽을 수 있는 책과 공간을 서재로 삼아서 읽고 쓰는 반복적인 순간에 나를 온전히 맡긴 경험이 자양분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현재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미미한 조각들, 하찮고 사소한 것들, 날마다 만나고 부딪히고 헤어지는 것들에 관하여 쓰고 싶다. 상처받아서 웅크리고 있는 어린 나와 화해하는 것, 푸르디푸른 날의 나를 안아주는 것, 소소한 것에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분주한 지금의 나에게 고개 고덕이면서 모든 것들을 말하고픈 것이다. 슬픔과 분노, 기쁨과 소망, 미움과 편애도 등장하여 나의 글은 어수선하고 험거울 수 있지 않을까. 미래걱정이 앞줄에 선다. 그럼에도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다린다. 문학으로 내가 행복하고 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으로 마음껏 살고 싶다.

머지않아 70살! 노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더욱더 세차게 끌어안을 수 있으려고 마음 발을 가꾼다. 이 찬란한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도서관으로 향한다. 누군가가 도서관에 가는 까닭을 묻는다면 글쓰기와 이후 내 삶의 모습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초혼

김소월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경 남 지 역 공공도서관

거제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http://gjlib.gne.go.kr
	거제시립수양도서관	639-3891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3881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639-3871	http://www.lib.geoje.go.kr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61	
거창군	거제시립하청도서관	639-3921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고성군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http://gc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http://gslib.gne.go.kr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www.goseong.go.kr/gslib
김해시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http://ghlib.gne.go.kr
	김해기적의도서관	330-4651	
	김해장유도서관	330-7461	
	김해진영한빛도서관	330-4831	
	김해칠암도서관	330-4591	http://lib.gimhae.go.kr/
	김해화정글샘도서관	330-2991	
	김해울하도서관	340-7161	
남해군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http://jy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지혜의바다	330-9800	http://ghj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3	http://nhlib.gne.go.kr
	남해화전도서관	860-3871	http://lib.namhae.go.kr/
밀양시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http://mrlib.gne.go.kr
	밀양시립도서관	359-6026	http://www.myclib.or.kr
	밀양시립영어도서관	359-6045	http://eng.myclib.or.kr/
사천시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391-1848	http://hnl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http://salib.gne.go.kr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855-8853	http://elc.sacheon.go.kr/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835-4436	http://scplib.gne.go.kr
산청군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3-2544	http://san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56	http://yslib.gne.go.kr
양산시	상북어린이도서관	392-5936	
	양산시립도서관	392-5900	
	양산영어도서관	392-5940	http://lib.yangsan.go.kr/
	양산웅상도서관	392-5950	
의령군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http://ur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2	http://jinlib.gne.go.kr/
진주시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진주서부도서관	749-5983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http://lib.jinju.go.kr/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창녕군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http://ysl.cng.go.kr/main/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http://nj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http://cnlib.gne.go.kr
창원시	경남대표도서관	254-4811	http://lib.gyeongnam.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21	http://ms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252-3860	http://jh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5	http://jdl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78-2831	http://cwlib.gne.go.kr
	고향의봄도서관	225-7371	
	내서도서관	225-7481	
	동부도서관	225-7531	
	마산합포도서관	225-7441	
	마산회원도서관	225-7471	
	명곡도서관	225-7321	https://lib.changwon.go.kr
	중리초동복합시설도서관	225-7492	
통영시	진해도서관	225-7511	
	상남도서관	225-7411	
	성산도서관	225-7391	
	의창도서관	225-7331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http://www.jhml.or.kr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3	http://tylib.gne.go.kr/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통영시립산양도서관	650-2500	
하동군	통영시립옥지도서관	650-4580	http://www.tongyeonglib.or.kr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81	http://hdlb.gne.go.kr
	함안군립칠원도서관	580-3643	https://www.haman.go.kr/chilwonlib
함안군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http://hmlb.gne.go.kr/
함양군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963-3186	http://hylib.gne.go.kr/
합천군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932-0521	http://hclib.gne.go.kr



김해 지해의바다



김해 장유도서관

